

유흥가 코로나 재확산인데 ... 구시청 주점은 '불야성'



'복적복적' 구시청 17일 새벽 1시까지 광주시 동구 구시청 일대 한 헌팅포차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다닥다닥 붙은 채 길게 줄을 서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쏟아진 상무지구 17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가 지나는 이들과 주차된 차들 없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유흥가 르포

광주지역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와 지역 사회에 초비상이 걸린 16일, 광주시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일대 유흥가는 '코로나 발생 전(前)'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광주시가 시내 전역 유흥업소를 휴업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시내 유명 호프집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주말 밤과 임시 공휴일 연휴를 즐기려는 손님들로 붐볐다. 반면,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루던 광주시 최대 유흥가인 상무지구 일대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유흥업소가 줄줄이 폐쇄되면서 화려한 네온등이 꺼져 골목은 어둡기까지 했고 인근 식당도 손님이 없어 썰렁했다.

헌팅포차·감성주점 입구 새벽 1시에도 수십명 대기행렬

"1m 거리두기 어려워 ... 술마시는데 누가 마스크 해요?" 밝히고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호객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광주 최대 유흥가지만 이날은 공원 반경 500~600m 주변 유흥주점들이 문을 닫았다. 광주시는 상무지구를 비롯, 일대 유흥주점 682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광주시는 주말과 공휴일 기간, 행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집중 단속도 시작했다. 이 때문인지 일대 거리는 지나가는 손님을 보기 힘들었다. 톱 소주방들도 '코로나19로 인해 24일까지 영업을 중지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문을 켜지 않았다. 유흥주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부 감성주점, 바, 헌팅포차들을 찾는 손님들도 예전만 못했다. 상무지구에서 만난 한 남성은 "평소 10분의 1도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야성 동구 구시청 사거리>광주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일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주점은 클럽처럼 북적였다. 헌팅 포차는 식당 내 울려 퍼지는 음악에 맞춰 테이블 근처에서 춤을 출 수 있고 남녀 간 자연스러운 합석도 이뤄지는 주점이다. 헌팅포차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유흥주점 영업 금지령'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문을 열고 영업을 했다. 17일 새벽 1시까지 찾은 구시청 사거리 일대 헌팅 포차와 감성주점은 빈 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헌팅포차 앞에는 대기행렬 길도 수십미터에 달했고 입장까지 1시간 가까이 걸렸다.

쏟아진 상무지구

출입명부나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시스템을 활용해 입장시키고 있으면서도 정작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손님은 보이지 않았다. 마스크 끈만 귀에 걸치고 코와 입을 내놓은 채 앉아있는 '턱스크' 젊은인들도 많았다. 출입 명부 작성도 엄격하지 않아 일부 손님들은 '아까 작성했다'며 입장해 일행을 찾아 앉는 모습도 보였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방역을 위해 주점과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술잔 돌리지 않기,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동구 구시청 일대에서 만난 한 젊은 남성은 "술마시는데 누가 마스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제 3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물난리 피해 구레주민 앞에서 "매뉴얼대로 했다"는 환경장관

주민 간담회서 책임회피 발언 "물장사 매뉴얼 아니냐" 반발

수해 상황을 살피러 구레를 방문했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물난리를 부른 장본인으로 지목된 산하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다. 책임 소재 규명 및 배·보상 등 향후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번 피해가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한다"고 언급하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17일 구레 주민들이 제공한 동영상 보면, 지난 16일 조 장관은 구레 5일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댐 방류수 적절성 등 원인을 밝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지역 추천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고 10월 말까지의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사실은 이번 피해가 (수공 측은 댐 방류를) 매뉴얼대로 했다고 합니다만,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를 하겠다. 항구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매뉴얼 좋아하네, 장사치 매뉴얼이냐", "국가기관



조명래 환경장관

매뉴얼이 아니라 물장사 매뉴얼 아니냐", "지금도 8월인데 10월까지 조사하는냐?" 라는 등 고성어 터져 나왔다. 주민들 항의는 동석했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게도 쏟아졌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영산강홍수통제소 지시를 받아 섬진강댐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댐 관리 실패' 여론이 수해지역에 광배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 최대 방류량(초당 1800t) 7분 전에야 주민에게 문자로 통지했다. 7-8일 폭우가 예보됐는데도 댐 수위를 낮추지 않고 물을 비축했다. 100% 인재(人災) 아니냐, 인재를 인정하느냐"고 따지자, 박 사장은 "인정한다, 안 한다는 말은 지금은 못한다"고 했다. 다만 박 사장은 주민들의 항의가 커지자 "지금 국가 차원의 조사가 진행중이고 어찌 보면 저희도 조사의 대상"이라며 "(조사 결과)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물러섰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로나 3차 대유행 우려 ... 광주시, 유흥업소 682곳 폐쇄 명령

광주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3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유흥업소 682곳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집합금지 및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2, 6면>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들 모두 224번 접촉자들로,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자는 지난 12일 이후 21명(217~238번)으로 늘었다. 이 중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는 모두 17명(217번, 221번, 223-227번, 229-238번)이다. 관련 자가 격리자도 308명에 이른다. 광주시는 일단 유흥가인 상무지구발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682개 유흥주점과 클럽에 집합 금지,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확진자가 방문한 유흥주점 18곳을 일시 폐쇄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5곳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단란주점과 감성주점, 노래

방, 콜라텍 등 1517곳에 대해선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광주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를 지식산업 핫플레이스!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 * 용도: 지식산업(복합)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자산-창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 본 홍보물의 내용은 변경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 CG 등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금관련 등 정부정책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보호를 위해 법정쟁점(주거)를 지원합니다. * 리빙랩형 미디어 파사드는 예정된 시공사로, 후속 사업 진행에 따라 입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삼일건설
KAIT 한국자산신탁
새삼일건설 배너 삼일루체아

8월 20일 오픈
T.372-6666

홍보관: 광주 서구 마곡동 165-14